

현장감각 뛰어난 베스트 저자들

독특한 경력으로 양질의 정보 제공... 일급 저자로 부상

실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서가 베스트셀러의 주요 장르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용화로 치닫고 있는 세상 분위기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실용서 분야에도 소설이나 에세이처럼 '베스트셀러 저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응용하기 수월하게 글로 풀어내는 비상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아울러 그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경력을 지니고 있어 관심을 끈다.

영어학습서의 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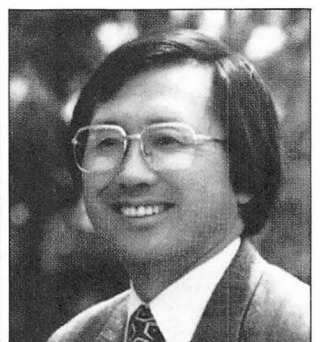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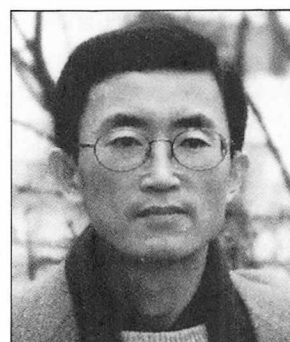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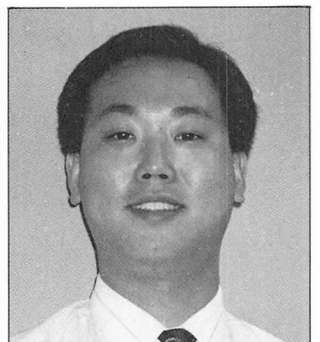
96년 상반기 실용서 저자 중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디자인 하우스) 시리즈의 저자인 한호림씨이다. 올해 50세인 그는 원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대학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였다. 대학 졸업후 평범하게 살던 어느날 억마살이 발동해 캐나다 여행길에 오른다. 아름답고 평온한 캐나다의 풍광

에 반한 그는 돌아오자마자 사표를 내던지고 이민을 단행했다. 현지에서 그는 어휘를 늘리는 영어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우편함에 쌓이는 광고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88년부터 평소 사장을 알고 지내던 출판사에 원고와 직접 그린 그림을 보내기 시작, 93년 1월 성인용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초판이 나오게 된다.

사전을 찾지 않고도 단어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억되게 꾸며진 이 괴짜 영어 학습서는 출간되자마자 화제를 일으켰고 현재 1,2판 합해 68쇄를 찍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93년말 출간된 주니어판(전2권)도 25쇄를 찍는 성공을 거두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같은 영어학습서로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는 《이것이 미국영어다》(전9권, 조선일보사)의 저자 조화유씨(53)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미국 웨스트 미시건대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70년 대한일보 신춘

실용서에도 소설이나 에세이처럼 '베스트셀러 저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독자가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쉽고 응용하기 수월하게 풀어내는 비상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아울러 그들의 독특한 경력도 관심을 끈다.



'96 상반기 베스트 실용서 저자들.
왼쪽 위부터 조화유·한호림·유태종·송세엽·박용수·정헌석씨.

'우수학술도서 지원' 제도 마련

(재)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금년 7월부터 '우수학술도서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내에서 출판된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 출판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제도는 출판의 뿌리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와 교양의 수준과 직결되는 학술출판을 진흥,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

95년 9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발행된 초판도서에 한해 신청을 받는데(단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도서는 제외), 선정된 책은 1종당 250만원의 출판지원금(인세 및 조판비 일부)을 보조받게 된다.

WTO체제 출범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베른협약 가입이 예정되는 등 외국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출판계 전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지원책은,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업성이 취약한 학술출판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 방편이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학술도서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건립 확대와 공공도서관의 학술도서구입비의 증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학술도서' 지원을 원하는 출판사는 7월 31일까지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신청도서 2부, 500자 이내로 간추린 도서내용의 개요를 한국출판금고 사무국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제출하거나 우송하면 되는데 우송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한국출판금고 사무국 앞으로 보낸다. (732-1434~5)

문예에 단편 <홍일>이 당선된 소설가이자 조선일보와 동아통신에서 기자로 재직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68년 《대사건과 대기자》라는 책을 내기도 했던 그는 73년 LA에 정착해 국내 유력 일간지들의 미국판 편집국장을 하면서 미국 영어에 관한 칼럼들을 쓰기 시작했다. 《조화유의 미국영어》(밝은 누리)라는 책도 서점에 나와 있으며, 지금까지 전 9권이 출간된 《이것이 미국영어다》도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실용서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장르는 이른바 '건강 실용서'들이다. 그중 94년 3월부터 주 1회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내용을 책으로 묶어 94년 11월 초판을 찍은 《안현필의 삼위일체 장수법》(한국일보)의 저자 안현필씨(82)는 건강 칼럼을 쓰

기 이전에는 《영어실력기초》《삼위일체》등 영어학습서의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EMI라는 입시학원 원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인물. 격동기 일본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폐결핵에 걸린 두명의 형들이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걸 지켜보며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영어공부의 '삼위일체'를 주장했던 그는 제독(除毒), 자연식, 운동을 축으로하는 건강의 '삼위일체'를 바탕에 깔 건강론으로 장안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약과 주사, 비싼 건강 식품에 의존하지 않고 평범한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비법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읽히는 건강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건강과 관련된 실용서 중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인 《음식궁합》(동지)의 저자인 유태

모여 “책”을 만들고 함께 “미래”를 열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전문직의 세계는 작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편집 취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늘구멍에는 실이 들어갑니다.

그 실은 낙타보다 작고 가늘지라도

훨씬 더 길고 질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전문직의 세계는 작고 좁을지라도

그 생명력은 길고 오래갑니다.

서울편집디자인스쿨에는 전문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소신을 갖고

평생 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떠한 일에도 부러지지 않을 사람,

마지막에 참 잘했다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서울편집디자인스쿨에 모여

책을 만들고,

함께 21세기를 열어갑니다.

정규과정	주말 정규과정	DTP특강과정	취재 전문반
정규과정 교육기간:5개월 (정규교육 3개월, 컴퓨터편집 2개월) 오전반 10:00-13:00 오후반 14:00-17:00 야간반 19:00-22:00 각반정원:30명 강의요일:월·화·목·금	주말 정규과정 교육기간:5개월 강의시간 토요일 15:00-21:00 일요일 10:00-16:00 각반정원:20명 교육과정 정규반과 동일	DTP특강과정 교육기간:8주 강의시간:19:00-22:00 각반정원:20명 강의요일 주5일(월~금) 교육과정 Illustrator·Photoshop 전문과정 개설	취재 전문반 교육기간: 여름·겨울 방학 강의시간 오전반 10:00-13:00 오후반 19:00-22:00 각반정원:20명 강의요일 주5일(월~금)

취업처: 신문사, 잡지사, 기업체홍보부 및 사보기획실, 단행본, 출판사, 학습지, 편집대행사, 협회 등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서울편집디자인스쿨

문의(대) 672-1841,2 FAX 637-0441

자동응답전화 704-4450(100*)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출구방향 100m

종 박사(건양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도 이
방면에서는 알아주는 베스트 저자이다.

《100세 청년》《식품보감》《아이들 두뇌
는 식탁이 결정한다》《세계의 장수촌》 등
음식과 건강생활의 상관관계를 조명한 여러
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유씨는 현재 보건
복지부 식품위생 심의위원, 공업진흥청 KS
위원, 곡천 건강장수연구소 대표 등으로 활
동하면서 이 분야의 명실상부한 최고 권위
자로 인정 받고 있다.

재테크 분야도 급부상

이른바 ‘재테크’라고 불리는 분야의 실용
서도 매출이 급상승한 대표적인 장르. 《시
민을 위한 부동산》(김영사)의 저자 박용수
씨(44)는 어려운 환경에서 상고를 졸업한
뒤 11년 동안의 은행생활과 15년 동안의 감
정평가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만학으로
공부한 부동산학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책을 쓰는 필자이
다.

그는 주변에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하도 많아 일일이 답변해 줄 수 없게
되자 주변사람들에게만 돌릴 목적으로 무가
지로 조그만 부동산 지침서를 만든 것이 반
응을 불러일으켜 이 방면의 베스트 필자가
된 재미있는 계기를 가지고 있다.

‘회계’ 분야의 베스트 필자로는 올 상반기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킨 《하루만에 정복
하는 재무재표》(김영사)의 저자 정현석씨
(50, 성신여대 경영학과)가 손꼽힌다.

《즐거운 회계산책》《알기 쉽고 재미있는
회계입문》 등을 펴내면서 지명도를 얻은 정
교수는 학부에서는 농화학을 전공한 다소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회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유
머와 위트로 회계를 풀어낼 수 있는’ 드문
필자이다.

올 상반기 ‘경매 신드롬’을 타고 좋은 반
응을 얻은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매
일경제)의 저자 강형구씨, 《성공적인 짜투
리 땅 투자법》(명진출판)의 최영진씨 등 이
방면의 저자들 중에는 기자들이 다수 눈에
띈다.

90년대 들어 급상승한 컴퓨터 실용서 분

야는 베스트셀러의 개체수에 비해 뚜렷한
필자는 많지 않다. 번역서가 주종을 이루는
데다 저자들의 순수한 창작물보다는 편저
형식의 책들이 많기 때문이다.

96년 상반기에 잘 팔린 컴퓨터 실용서 저
자 중 눈에 띄는 《송세엽의 한글 윈도우 95》
(명경출판사)의 저자 송세엽씨(34)는 《송
세엽의 메모리 관리》《송세엽 도스》 등으로
친숙한 필자이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한 다음 미국 UCLA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의 KPMG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공인회계사, 세무
사, 경영지도사, 증권분석사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 팔방미인이다.

출판 ‘애정’도 함께 지니길

《저는 인터넷을 하나도 모르는데요》(키
출판사)의 저자 송인식씨(29)는 특이하게
책이 출간된 출판사의 직원이다. 기획회의
에서 결정된 사안을 직접 책으로 쓴 송씨는
얼마전 정수아씨와 함께 《화면보고 따라하
는 한글 3.0》을 출간하기도 하는 등 이 분
야에 새롭게 떠오른 젊은 필자이다. 《저는
PC통신을 하나도 모르는데요》의 저자 이일
경씨는 나레이동통신에 근무하다 지금은 제
일기획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그외에도 류지창, 임채성, 안철수, 탁연
상, 이한우, 김형덕씨 등이 컴퓨터 실용서
분야의 1급 필자들로 분류되고 있다.

96년 1월에 출간되어 논란과 화제를 동시
에 불러일으킨 포커 실용서(?) 《포커 알면
이길 수 있다》(여백)의 저자 이윤희씨(35)
는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포커를 즐기는 포
커광으로 포커에 관한 평소의 깨달음을 담
은 원고를 들고 출판사문을 두드린 끝에 독
특한 실용서의 한 장르를 개척할 수 있었다.

출판시장을 실용서가 주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실용서 저자들도 꾸준히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출
판계에서는 해당 정보에 대한 지식이나 경
력과 더불어 철학적 깊이와 출판에 대한 애
정을 함께 지닌 필자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
하고 있다.

— 허 연 기자